



19世紀における海港都市と河川舟運：兵庫県高砂港と加古川舟運を事例に（国際学術シンポジウム「東アジアの近代と海港都市：文明の入口から出口、そして混合の場へ」報告要旨）

三角，菜緒

(Citation)

海港都市研究, 9:182-184

(Issue Date)

2014-03

(Resource Type)

departmental bulletin paper

(Version)

Version of Record

(JaLCD0I)

<https://doi.org/10.24546/81005502>

(URL)

<https://hdl.handle.net/20.500.14094/81005502>



19 世紀における海港都市と河川舟運

——兵庫県高砂港と加古川舟運を事例に——

三角 菜緒

近世初頭の日本では、年貢米を中央市場である大坂・江戸・京都へ輸送するために、領主主導で数多くの海港都市が建設された。そしてその海港都市は、内陸輸送、とくに河川舟運との連結を考慮して、河川の河口に設置された。近世の領主は、この海港都市と河川舟運を通して、海・河の両側面から物流を支配したのである。しかしながらとくに近世後期における海港都市については、民間主体の廻船の出港・寄港地としての研究が中心であり、内陸輸送や領主権力との関係性を踏まえた研究が少ない。そこで報告者は、姫路藩の統制下にあった、播磨国加古川河口の港である高砂町と加古川舟運を事例に、加古川舟運が高砂町へもたらす品物、なかでも領主の専売品の流通構造を解明することを通じて、19 世紀における海港都市と領主権力との関係を考察した。分析をへて報告者は、19 世紀の高砂町は、河川舟運を介して諸藩とのつながりを深めつつも、あくまでも藩港としての保護を求めるといったたかさをもっていたことを確認した。当該期の海港都市は、領主権力と対立して内々に民間の商取引がおこなわれていた点では無く、藩の保護の下、河川舟運を介して諸領主を取り込み、成長していこうとした点こそ評価されるべきであると報告者は考える。

19 世纪的海港都市与河流航运

——以兵库县高砂港与加古川航运为例——

近世初期的日本为了向中央市场大坂、江户、京都运输年贡米，在诸侯的带领下建设了许多的海港都市。这些海港都市被设置在河流的入海口，目的除了是向内陆运输物资，更重要的是考虑到与河流航运的对接。近世的诸侯就是通过这样的海港都市和河流航运，从海、河两方面控制了物流。但是，有关近世后期的海港都市研究大多把目光投在了“作为民间驳船出港、停泊所在地的海港都市”，而涉及与内陆运输、诸侯权力之间的关系的研究则很少。因此，本报告以姬路藩统治下的位于播磨国加古川入海口的港口高砂町与加古川航运为事例，通过了解加古川航运向高砂町运输的物资（尤其是诸侯的专卖品）的物流结构，剖析 19 世纪海港都市与诸侯权力之间的关系。分析结果显示，虽然 19 世纪的高砂町通过河流航运不断加深与各藩的联系，但其作为一个藩的港口寻求保护的色彩却更浓。从该时期的海港都市，发现相比于“与诸侯权力对抗下的民间内部所进行的商业交易”，“在藩的保护下，利用河流航运拉拢诸侯而把城市发展壮大”这一点更值得肯定。

19 세기의 해항도시와 하천주운(河川舟運)

——효고현 타카사고항과 카코가와 주운을 사례로——

근세 초기의 일본에는 연공미(年貢米, 넌구마이:소작료로 바치는 쌀)를 중앙시장인 오사카(大坂)·에도(江戸)·교토(京都)에 운송하기 위하여 영주 주도로 많은 해항도시가 건설되었다. 그리고 그 해항도시는 내륙운송 특히 하천 주운과의 연결을 고려하여 하천의 하구에 설치되었다. 근세 영주는 이 해항도시와 하천주운을 통하여 바다와 강 양 측면에서 물류를 지배했던 것이다. 그렇지만 근세 후기의 해항도시에 대해서는 민간주체의 회선(廻船)의 출항·기항지에 대한 연구가 중심으로 이루어졌고, 내륙운송이나 영주권력과의 관계성을 다룬 연구는 많지 않다. 따라서 본 연구는 히메지번(姫路藩)의 통제하에 있었던 하리마노쿠니(播磨国) 카코가와 하구의 항이었던 타카사고초(高砂町)와 카코가와 주운을 사례로 카코가와 주운이 타카사고초에 영향을 미친 물품, 그 중에서도 영주의 전매품의 유통구조를 해명(분석, 고찰)하는 것을 통하여 19 세기의 해항도시와 영주권력과의 관계를 고찰했다. 분석을 통하여 19 세기의 타카사고초는 하천 주운을 매개로 여러 번과의 관계를 돈독히 해 가며, 어디까지나 번의 항으로서 보호를 요구하는 강경함을 가지고 있었던 점도 확인 할 수 있었다. 이 시기의 해항도시는 영주권력과 대립하여 내부에서 비밀리에(내밀하게) 민간의 상행위가 행하여졌더라는 점이 아니라 번의 보호 하에 하천 주운을 매계하여 여러 영주를 연관시켜 성장해 가고자 했던 점이야말로 평가 받아야 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